

후쿠시마 핵사고 11 주년 준비위원회

제목 [취재요청] 후쿠시마 핵사고 11 주년, '기억하라 후쿠시마, 핵발전소 이제 그만' 행사 개최

취재일시 2022. 03. 05. 14:00/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

담당 후쿠시마 핵사고 11 주년 준비위원회
변인희 (010-5737-6511, bihee91@greenkorea.org)
송주희 (010-3273-1680, joy325@kfem.or.kr)
고다슬(010-3247-5238, eja@energyjustice.kr)

배포일시 2022. 03. 03

전체내용 <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-0J1tTwO1nvGqICZsVxEQ5X-PXJHVUtN5sFfY0b6CvQ/edit?usp=sharing>
확인링크

[취재요청]

후쿠시마 핵사고 11 주년,
<기억하라 후쿠시마, 핵발전소 이제 그만>
대책 없는 핵폐기물,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

-
- 일시 : 2022년 3월 5일 (토) 오후 2시
 - 장소 :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변(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4)
 - 주최 : 후쿠시마 핵사고 11 주년 준비위원회

○ 프로그램 : 집회 및 행진

- 14:00-14:50 본집회
- 14:50-15:40 행진 (with 레츠피스)(핵폐기물 드럼통을 끄는 퍼포먼스)
- 15:40-16:00 마무리집회

○ 내용 및 퍼포먼스

❖ 여는 말씀: 양재성 목사 (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)

❖ 본집회 발언

- 발언 1. 심상정 (정의당 대선후보)
- 발언 2. 이백운 (노동당 대선후보)
- 발언 3. 오준호 (기본소득당 대선후보)
- 발언 4. 정규석 (녹색연합 사무처장)
- 발언 5. 황분희 (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위원장)
- 발언 6. 이선영 (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)
- 발언 7. 오현화 (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)

❖ 선언문 낭독

❖ 핵폐기물 퍼포먼스

❖ 행진

- 마로니에 공원 앞 → 혜화동 로터리 → 이화사거리 → 마로니에 공원 앞

❖

❖ 마무리집회

- 발언 1. 김예원 (녹색당 공동대표)
- 발언 2. 유에스더 (YWCA 연합회 간사)

-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핵사고로 인한 피해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.
- 국내에서는 여전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.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,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,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및 특별계획 강행 등 수많은 현안들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.
-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재개와 SMR 개발 등 찬핵 주장이

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, 핵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, 핵발전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지을 것인지를 문제에는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대안 없는 찬핵 주장은 핵발전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.

- 3월 5일 오후 2시,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탈핵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핵발전 확대 주장의 무책임함, 핵발전의 위험성, 핵폐기물 문제 등 탈핵 이슈를 함께 나누고 탈핵 의지를 모아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행동의 장이 될 것입니다.
-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.

붙임 1. 행사 포스터 1 장. 끝.

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행동

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

대책 없는 핵폐기물,
서울도 예외가 아니다

탈핵

함께해요!

2022. 03. 05(토) 14시~16시
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

- 1 본집회 14:00~14:40
- 2 행진 with 레츠피스 14:40~15:40
- 3 마무리집회 15:40~16:00

<행진 경로>



문의: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02-735-7067
에너지정의행동 고다슬 010-3247-5238
녹색연합 변인희 070-7438-8527

주최 :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

후원 계좌 : 우리은행 1005-502-479104 (환경운동연합)